

# 아동기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 환경적 요인인가 또는 가족구조인가?

###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s - Environmental Factor or Family Structure?

김 영 회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Kim, Young Hee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Hankyong National Univ.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family structure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heir children. Among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the family income, the affectiv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child, and the mother's educational involvement are considered. Total of 164 mothers with children attending elementary school completed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egree of educational involvement of single mothers was lower than that of mothers of both parents families. In order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e path regression was performed. The family income and the mother-child affective relationship were found to have indirect effects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maternal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Key words :**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family income, mother-child affective relationship, mother's educational involvement, family structure

## I. 문제제기

일찍이 편모가족의 자녀문제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편부모 가족구조가 자녀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수행되었으며, 여러 실증연구들은 아버지의 부재가 자녀의 부적응 상태나 문제행동에 직접적 원인이 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영희 1979;

최경순 1979; 김영희 1996에서 재인용; Astone & McLanahan, 1991; Krein & Beller, 1988).

그러나 최근에는 편모가족의 자녀문제를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편모가족 자녀의 부정적 발달에 대하여 가족구조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가족의 환경적 요인 즉, 가족수입이나 상호작용적 과정으로 편모와의 관계 및 양육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인숙, 1994; 김영희, 1996; Bank, et al, 1993). 편모는 양친가족의 어머니에 비해 일반적으로 부적절하게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적절한 부모행동은 자녀의 적응 및 발달

---

Corresponding author : Kim, Young Hee

Tel : (031) 670-5234 Fax : (031) 677-5230

E-mail : ykim@hnu.hankyong.ac.kr

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ank et al., 1993). 물론 그동안 자녀에 대한 부정적 효과로 정서적 부적응이나 가출, 폭력 등 비행행동도 많이 지적되었지만(Curtner-Smith & Mackinnon-Lewis, 1994), 편모가족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양친가족의 아이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크게 뒤떨어진다는 연구결과들(Astone & McLanahan, 1991; Downey, 1994)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부모역할 및 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교육학이나 가족학 분야에서 축적되면서, 최근 들어 가정과 학교간 상호연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은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Bronfenbrenner, 1979; Dornbusch et al., 1987). 즉, 초등학교 입학이후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또는 참여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밝히는 연구로 집중되고 있다. 부모의 참여행동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서 학부모회의 참석, 자원봉사, 자녀의 숙제감독 또는 돕기, 학업격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서구의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참여가 자녀들의 성공적인 학교적응, 예를 들어 높은 학업성취, 긍정적인 학교생활 등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자녀의 학습활동 관심이나 교사와의 의사소통 및 학교모임 참여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영희, 2001; Stevenson & Baker, 1987), 부모의 애정적이며 지지적이 양육방식이 교육참여를 매개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DuBois et al.,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자녀의 학업성취가 가족의 환경적 요인 및 가족구조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가족소득,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 등 환경적 요인과 가족구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교육참여에 의해 매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가족구조에 따라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 어머니의 교육참여 및 자녀의 학업성취

에 차이가 있는가?

2. 자녀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데 사회인구학적 배경, 환경적 요인 즉, 가족소득,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 및 어머니의 교육참여 그리고 가족구조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가족소득, 어머니-자녀간 관계, 어머니의 교육참여 및 가족구조가 어떠한 경로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가족의 환경적 요인 및 가족구조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결속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혼 및 별거하는 부부가 늘어났으며,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한 사망도 늘어나 편모가족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편모가족의 문제점을 고찰한 연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자녀문제이다.

편모가족의 자녀문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편부모 가족구조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아버지 역할의 부재가 자녀의 부적응 상태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부모가 이혼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자존감, 과잉행동,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행동, 우울감과 위축 등 내현적 행동, 낮은 심리적·사회적 적응, 낮은 학업성적 등을 보인다고 한다(유희정, 2001).

그러나 최근들어 가족구조 자체보다는 환경적 변수들이 자녀의 적응 및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적 변수의 예로, 연구자들은 경제적 압박(McLanahan & Booth, 1989), 부적절한 편부모-자녀간 관계(Amato, 1993), 편모의 자녀에 대한 소홀한 감독 및 통제(Downey, 1994) 등을 지적하였다. 그 중 경제적 결핍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편부모 가족구조와 자녀 적응 및 발달 사이의 부정적 상관

관계는 '부모의 낮은 수입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가족소득을 통제하는 경우 편부모가족 자녀와 양친가족 자녀간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증연구에서 편부모가족과 양친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동일하게 한 후 자녀의 학업성취를 비교하였을 때, 양친가족 자녀에 비해 편부모가족 자녀의 학업성취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 관측되었다(Guidubaldietal, 1983; Amato, 1993에서 재인용).

경제적 결핍 관점에 관한 연구들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보충적인 해석 방법으로 사회화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에서는 주로 어머니와의 정서적 관계 및 양육방식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와의 온정적 관계나 어머니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여러 실증연구들에 의하면 편모는 양친가족의 어머니에 비해 소홀한 애정표현을 보이거나 감독과 훈육에서 뒤떨어지는 등, 이러한 부적절한 부모행동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onstein, et al., 1993; Curtner-Smith, et al, 1994). 물론 그동안 자녀에 대한 부정적 효과로 정서적 부적응이나 비행 등의 문제행동도 많이 지적되었지만, 학업부진, 학교중퇴 등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들(Harris & Marmer, 1996)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 2.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참여의 매개역할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모의 역할과 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으며, 최근에는 부모행동을 아동기 자녀의 교육에 관한 참여행동으로 이해하여 참여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적 틀로 Epstein(1987)의 가정-학교간 영역중첩모델(the model of overlapping spheres of influence between families and schools)을 들고 있다(Balli et. al., 1998; 이세용, 1997).

이 관점에 따르면, 가정과 학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을 서로 공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공

유에 대한 인식은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들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적 활동들은 부모와 교사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이세용, 1997). 다시 말하여 Epstein의 모델은 학부모-학교간 공유목표와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예측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참여 효과가 많은 연구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80년대 말부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eith., et al, 1986; Stevenson & Baker, 1987).

Epstein모델에 의하면, 아이들의 숙제를 점검하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교사간 공유활동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직접적이며 가시적 도움이 아니더라도 자녀 또는 교사와 학교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일과 같이 간접적이고 실행하기 쉬운 일도 아동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Reynolds & Gill, 1994).

한편, 앞에서 여러 선행연구들은 편모가족구조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데 어머니와의 정서적 관계 및 양육행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Epstein모델에 의거한 자녀교육 참여행동을 어머니의 구체적인 양육행동으로 간주하고, 자녀의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있다 하겠다.

국내에서는 아직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나, 이세용(1997)은 중류층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교육참여 실태를 기술하였고, 김영희(2001)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교육참여 활동이 아동기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참여를 매개로 그들의 온정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지적한 바 있다(김영희, 2002). 즉, 온정적 가정의 자녀들은 그들 부모가 자녀교육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를 양친가족과 편모가

족으로 분류하여 가족구조 및 환경적 요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참여가 여기에 어떻게 매개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YWCA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실시하는 여성가장 또는 일반인을 위한 취업강좌에 수강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비확률 표집인 편의표집을 사용하여 서울 4곳, 수원 1곳, 천안 1곳, 대전 1곳의 일하는 여성의 집을 대상장소로 정한 후 연구자 및 훈련된 대학생 3명이 대상기관을 방문하였다. 각 기관의 강좌시간을 이용해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초등학교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질문지 총 164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 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최저 28세부터 최고 55세까지이며, 평균 36.8세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학력과 직업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이 34.0%를 차지하였다.

가구의 수입은 가족원 모두의 월수입을 합한 것으로, 100만원 이하가 응답자의 49.0%, 101-130만원이 9.7%, 131-160만원이 15.2%, 160만원 이상이 29.0%이었다. 가족의 수입이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된 이유는 아마도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한 취업알선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일반적인 양친가족 대 편모가족 비율보다 본 대상자는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편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37.8%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자

녀는 딸(45.9%)보다 아들(54.1%)이 많았다.

#### 3. 측정도구 및 주요변수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자녀교육 참여활동,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에 관한 2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녀교육 참여활동은 김영희(2001)의 학부모교육 참여유형을 참조하여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가족학 전공자 2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즉, 자녀와 학교공부에 대한 대화, 숙제지도, 교사와 상담 및 학교행사 참석 등 7문항을 더한 값으로 학업에 대한 대화, 숙제돕기 등은 거의 없음(1점)에서 1주일에 1번 이상(4점)으로, 교사와 면담이나 학교행사 참여 등은 지난 한해동안 없음(1점)에서 3번 이상(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높은 점수는 어머니가 자녀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활동의 신뢰도 계수는  $\alpha=0.76$ 이다.

자녀에게 애정표시, 관심갖고 격려해주기 등 2 문항으로 구성된 정서적 관계의 신뢰도는  $\alpha=0.74$ 이다. 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식에는 가족소득, 가족구조,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 및 어머니의 교육참여 행동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는 어머니가 지각한 지난 1년간 국어와 수학의 학교성적으로 측정, 분석되었다.

### Ⅳ. 결과 및 해석

#### 1. 가족구조에 따른 어머니와 자녀간 정서적 관계, 어머니의 교육참여 및 자녀의 학업성취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동의 학업성취, 그리고 매개변수인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 어머니의 교육참여행동 등이 가족구조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t-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가족구조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관한 참여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양친가

<표 1> 가족구조에 따른 어머니-자녀간 관계, 어머니의 교육참여 및 자녀의 학업성취의 차이

	양친가족(n=102)	편모가족(n=62)	t 값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	14.20(1.86)	14.04(2.26)	0.20
어머니의 교육참여 행동	18.61(4.25)	16.31(3.78)	11.96**
자녀의 학교성적	12.11(1.71)	11.04(2.42)	10.89**

1) 평균값, 2) 표준편차

\*\* : p<0.01

족의 어머니들보다 편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행동 수준이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Milne, Myers & Rosenthal,1986)의 결과와 유사하다 하겠다. Milne 등은 아동의 숙제를 점검하고 도와 주기, 책 골라주기, 교사와 지난 1년간 만난 횟수 등으로 교육참여 행동을 측정했을 때 양친가족 어머니에 비해 편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은 참여행동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가족구조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의 차이를 살펴보면, 양친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학교성적보다 편모가족 자녀의 성적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Milne 등(1986)의 결과와는 일치하나, Acock 과 Demo(1994, Balli, 1998에서 재인용)는 가족구조에 따른 자녀의 성

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 아동기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는 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데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가족소득,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 어머니의 교육참여 등 환경적 요인과 가족구조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표 2>에 의하면, 초등학교 자녀의 배경변수들 중에서는 어느 것도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학교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 어머니의 교육참여 행동 및 가족구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

<표 2>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학업성취	
	b	β
자녀의 성 <sup>1)</sup>	.39	.09
어머니의 연령	-.00	-.01
어머니의 학력	.27	.09
어머니의취업여부 <sup>1)</sup>	-.00	-.01
가족소득	-.00	-.08
정서적 관계	.16	.16*
교육참여	.15	.31**
가족구조 <sup>1)</sup>	-.89	-.21*
상 수	5.87	
R <sup>2</sup>	.23	
F값	5.09**	

1)은 가변수임. 성(0=딸, 1=아들), 가족구조(0=양친가족, 1=편모가족), 취업여부(0= 직업 없음, 1= 있음)

\* : p < 0.05 , \*\* : p<0.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자녀간 관계가 애정적이며 친밀할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편모가족 자녀보다는 양친가족 자녀가 학업성적이 높았다.

본 중다회귀분석에 포함된 8개 독립변수들은 학업성적 총변량의 23%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기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머니의 교육참여가 강한 긍정적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 및 어머니 교육참여의 이같은 긍정적 영향은 이 변수들이 가족구조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수임을 확인해준다고 하겠다.

### 3. 아동기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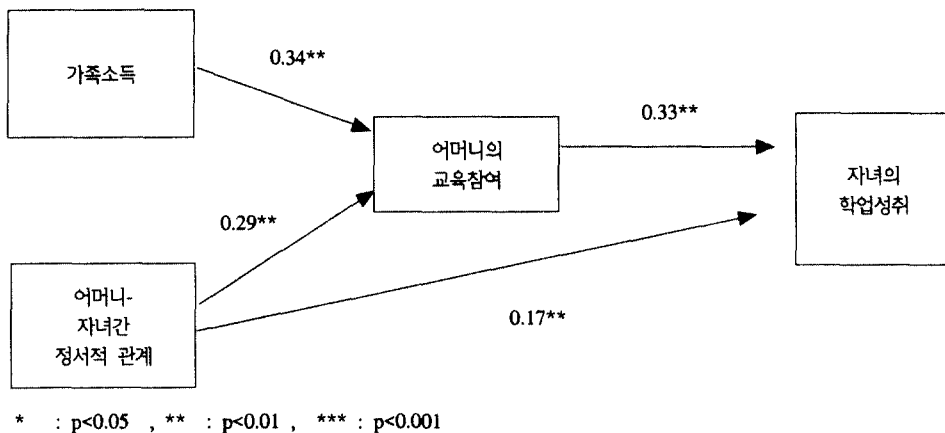
앞의 중다회귀분석에서 본 조사의 주요 환경적 변수인 가족소득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소득,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 및 가족구조는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본 교육참여를 매개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시도하였다. 경로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가족소득,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 가족구조를 선행변수로, 교육참여를 매개변수로 아동의 학업성취

를 종속변수로 보았다. 유의미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표시한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우선,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는 직접적으로 혹은 어머니의 교육참여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어머니와 자녀사이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학업성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0.17$ ,  $p<0.05$ ) 또, 긍정적 관계일수록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관해 참여행동을 더 많이 하였으며( $\beta=0.29$ ,  $p<0.01$ ), 이는 결국 자녀의 학업성적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beta=0.33$ ,  $p<0.001$ ). 다음으로, 가족소득이 어머니의 교육참여에 영향을 주고( $\beta=0.34$ ,  $p<0.001$ ), 교육참여는 다시 학교성적에 영향을 주는 ( $\beta=0.33$ ,  $p<0.001$ ) 경로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 참여수준을 높이고 이 높은 수준의 참여행동은 결국 자녀의 학업성적을 진보시킨다는 것이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족소득, 어머니-자녀간 정서적 관계, 어머니의 교육참여 등 환경적 요인과 가족구조가 아동기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어머니 164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



<그림 1> 경로모형

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친가족 어머니들에 비해 편모들의 아동기 자녀교육 참여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즉, 편모들은 양친가족 어머니들보다 정기적으로 숙제를 도와주거나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와 면담한 경험이나 학교행사에 참석한 경험이 저조하였다. 따라서 편모가족 자녀의 건전한 발달 및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편모들의 자녀교육에 관한 참여수준을 높이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가정과 학교의 두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가정의 측면에서 편모들에게 자녀교육 참여의 성격 및 효과를 이해시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어머니들에게 자녀교육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어머니들이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학습진도에 따른 교재를 함께 선택하며 방과후 정기적으로 숙제를 점검할 수 있고, 담임교사와 접촉을 통해 협조관계를 이루거나 자원봉사의 역할로 또는 학교모임에 참여하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참여유도 방안으로서 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편모를 위한 부모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학교현장에서는 부모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취업하고 있는 편모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학교행사 개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평일에 치루어지는 학부모 참관수업을 일요일로 바꾸어 취업모들에게 일요일에 학교방문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모-학교간 거리를 좁히는 방안의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어머니 자녀간 정서적 관계는 직접적으로 또는 어머니의 교육참여를 매개로 아동기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와 애정적 관계일 때 어머니가 자녀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아동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온정적이며 친밀한

관계의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지향적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 Steinberg 등(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가족소득이 어머니의 교육참여를 매개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자녀의 학업성취를 설명하기 위하여 실시한 단순 회귀분석에서는 가족구조, 교육참여 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주요 독립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경로분석에서는 가족구조보다는 가족소득이 어머니의 참여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구조보다는 소득이라는 경제적인 요인이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며 확실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하겠다. 따라서 자녀의 발달 및 적응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간접적인 가계지출 보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방과후 또는 주말에 학습지도, 숙제지도, 놀이지도 등을 하는 등 다양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는 아동기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부모참여를 장려하는 사회복지체제의 개입에 대하여 경험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횡단적 자료를 통해 나온 변수들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다. 일부 변수간 관계를 일방적 관계로 설명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부모참여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으나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학교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참여행동 및 자녀의 적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적 현상을 다루는 연구에 있어서는 복수참여자로부터 정

보를 수집하여 한쪽의 반응을 다른쪽의 반응에 비추어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Olson(1985)은 주장한 바 있다. 후속연구에서 자녀로부터의 정보가 보완되면 어머니의 참여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참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부모참여-자녀학업성취 관계를 탐색해봄으로써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하겠다.

**주제어** : 아동의 학업성취, 가족소득, 어머니 자녀간 정서적 관계, 어머니의 교육참여, 가족구조

### 참고문헌

- 김인숙(1994).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와 가족복지 접근. *한국청소년 연구*, 19, 겨울, 5-18.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김영희(200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와 자녀의 학교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9(1), 179-190.
- 김영희(2002).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1), 1-14.
- 박순자·이은희(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10(1), 7-19.
- 유희정(2001). 부모의 이혼과 부모간의 갈등이 대학생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2), 57-78.
- 이세용(1997). 아버지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31집, 595-623.
- Amato, P. R. (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38.
- Astone, N. M., & McLanahan, S. (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309-320.
- Balli, S., Demo, D. H. & Wedman, J. F. (1998). Family involvement with children's homework: An intervention in the middle grades. *Family Relations*, 47, 149-157.
- Bank, L., Forgatch, M. & Patterson, G. (1993). Parenting practices of single mothers: Mediators of negative contextual factor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71-384.
- Bronstein, P., Clauson, J., & Stoll, M. (1993). Parenting behavior & children's social, psychological, & academic adjustment in diverse family structures. *Family Relations*, 42, 268-276.
- Curtner-Smith, M. E. & Mackinnon-Lewis, C. E. (1994). Family process effects on adolescent males' susceptibility to antisocial peer pressure. *Family Relations*, 43, 462-468.
- Dornbusch, s. M., Ritter, P., Liederman, R., Roberts, D. & Fraleigh, M. (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Downey, D. (1994). The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from single - mother & single - father families. *J. of Family Issues*, 15(1), 129-147.
- DuBois, D. L., Eitel, S.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 Epstein, J. L. (1987). Effects on student achievement of teacher's practices of parental involvement. In S. Silvern(Ed.), *Literacy through family, community and school interaction*. Greenwich, CT: JAI



- Press.
- Harris, K. M. & Marmer, J. K. (1996). Poverty, parental involvement & adolescent well-being. *J. of Family Issues*, 17-5, 614-640.
- Keith, T. Z., Reimers, T. & Fehrmann, P. (1986). Parental involvement, homework and TV time : on high school achievement. *J. of Educational Psychology*, 78(5), 373-380.
- Krein, S. F. & Beller, A. H. (1988). Educational attainment of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differences by exposure, gender and race. *Demography*, 55, 221-224.
- McLanahan, S, & Booth, K. (1989).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57-580.
- Milne, A., Myers, D. & Rosenthal, A. (1986). Single parents, working mother and educational achievement of school children. *Sociology of Education*, 59, 125-139.
- Reynolds, A. & Gill, S. (1994). The role of parental perspective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inner-city black children. *J of Youth & Adolescence*, 23(6), 671-694.
- Steinberg, L., Lamborn, S. D. & Dornbusch, S. M. (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63, 1266-1281.
- Stevenson, D. L. & Baker, D. P. (1987). The family-school relation and the child'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348-1357.

(2002. 08. 31 접수)